

# 국립대 교수의 일탈

69차례 강의시간 학교 비우고  
빙상 빌려 초등생 개인과외도  
교육부, 전명규 교수 수사의뢰



전명규 한체대 체육학과 교수(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 /연합뉴스

빙상계 '대부'로 알려진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에 대해 교육부 조사 결과 각종 비위의혹이 확인됐다. 특히 전 교수는 무려 69차례에 걸쳐 학교 수업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학교 측에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6일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전명규 교수의 복무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에서 나타난 빙상장 사용 실태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앞서 한국체대 빙상장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조교에게 갑질을 한 의혹을 받았다. 전 교수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학교 안팎에서는 '빙상장에서 훈련하려면 전 전 부회장의 허락이 필요하다', '전 전 부회장이 원장으로 있는 평생 교육원이 빙상장 대관 업무를 담당한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조사 결과, 전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여 간 총 69회에 걸쳐 수업시간 중 학교를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전 교수의 자동차 출입기록 등을 확보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고, 다만 수업시간에 학교 밖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조사되지 못했다.

교육부는 특히 전 교수가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조교에게 학교발전기금 기탁과 골프채 구매 비용 대납을 강요했다는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한체대 빙상장이 절차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체대 체육학과 전직 조교인 A 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전 교수의 수업시간에 빙상장에서 대학생들과 훈련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홍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정시, 문·이과 교차지원 전면 허용

## 메트로가 꼭 짚는 대입전략

⑤ 서강대

수시·학종 일반은 수능최저 적용

모집시기·전형별 장단점 맞춰 지원

2019학년도 서강대는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종합자기주도형으로 457명, 학생부종합 일반형 341명, 논술전형 346명, 학생부종합 고른기회전형 44명, 사회통합 40명, 알바트로스 창의특기자 34명 등 1262명을 선발하고, 정시는 가군에서 수능 중심으로 320명을 선발한다. 정원의 10%는 수시 특성화고교졸업자 9명, 정시 가군 농어촌학생 51명, 기회균형선발 26명, 특수교육대상자 16명 등을 각각 모집한다.

수시 학생부종합자기주도형은 학과별 모집으로 서류평가 100%(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로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이 합격자를 선발한다. 반면에 수시 학생부종합 일반형은 학부별 모집이고, 서류평가 100%로 수능 최저학력기준(3개 영역 등급합 6이내)을 적용해 선발하며 자기소



오승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

개서는 수능 직후에 제출하여 일명 보형성 지원이 가능하다.

수시 논술전형은 논술 80과 학생부 20(교과 10, 졸업 및 봉사 10)으로 전형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 논술 고사는 인문계가 통합교과형 논술, 자연계는 수리논술이 실시된다.

올해 모집부터 커뮤니케이션학부, 지식융합학부를 통합해 지식융합미디어학부로 선발한다. 세부 전공은 3개 전공에서 4개 전공(신문방송학,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글로벌한국학, 아트&테크놀로

지)으로 변경된다.

정시 모집 가군은 수능 90%와 학생부 비교과(졸결 및 봉사) 10%로 전형한다. 수능 영역별 가중치는 전계열이 국어 1.1(34.3%), 수학과나 1.5(46.9%), 사탐·과탐(2) 0.6(18.7%)이며 표준점수를 활용한 다(단, 수학기형 응시자 10% 가산). 인문, 자연계열 구분없이 교차 지원이 전면 허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서강대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은 모집시기별, 전형별 장단점에 맞추어 비교과를 포함하여 학교 내신에 자신이 있는 경우는 수시 학생부종합 자기주도형에, 수능 성적에 비교적 자신이 있으면 수시 논술전형, 정시를 병행해 준비하고, 수능 최저 통과가 가능하고, 내신 성적의 비교 우위가 있으면 학종 일반형에 지원할 수 있다.

2018 수시 전형유형별 합격자 교과 평균등급을 보면, 학생부종합 자기주도형은 2.8등급, 일반형은 2.2등급, 논술전형은 3.6등급이므로 참고하여 지원한다. 다만,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대체로 일반고 기준으로 일반형은 1.5등급, 자기주도형은 1.7등급 이내가 현실적인 지원선으로 보인다.



한성대(총장 이상한)는 지난 4일 성북경찰서에서 성북경찰서와 '캠퍼스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성대학교

## 한성대-성북경찰서

# 캠퍼스·인근지역 범죄예방 맞손

한성대(총장 이상한)는 지난 4일 성북경찰서에서 성북경찰서와 '캠퍼스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선제적 범죄예방 등을 통해 대학 캠퍼스와 인근 지역의 치안 강화를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해 한성대와 성북경찰서 간 핫라인을 구축해 위급시 유선상으로 바로 담당 경찰에게 구조지원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한성대 총학생회 30명, 학생복지위원회 27명 등 57명의 재학생으로 구성된 한성대 캠퍼스 순찰대

를 구성해 월 2회씩 성북경찰서 경찰 등과 함께 방범 활동을 벌인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성대 이상한 총장을 비롯해 최천근 학생처장, 조규태 입학홍보처장과 성북경찰서 이준배 서장 등이 참석해 캠퍼스 안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상한 총장은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대학으로서 한성대 재학생들이 성북경찰서와 함께 주도적으로 방범활동을 나서는 등 보다 안전한 캠퍼스와 지역이 되도록 모든 인프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홍수 기자

# 직장인 "인센티브보다 유연근무제"

혜택받고 싶은 복지 '37.8%' 응답

직장에 다니면서 혜택을 받고 싶은 최고의 복지로 구직자와 직장인 10명 중 4명 꼴로 '유연근무제'를 꼽았다.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을 위해 근로자 개인의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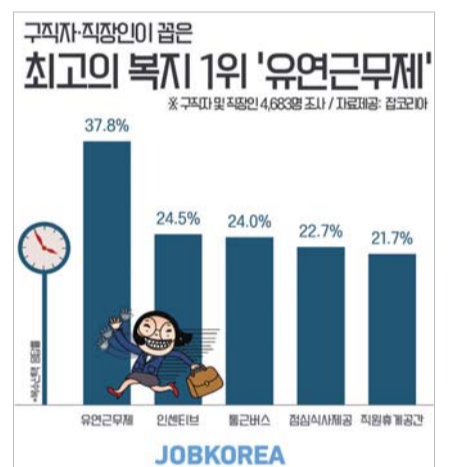
5일 잡코리아가 구직자와 직장인 46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혜택받고 싶은 최고의 복지제도'로 유연근무제를 꼽은 응답자가 37.8%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잡코리아 슈퍼기업관에 소개된 기업문화와 복리후생이 우수한 유망 기업들이 실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를 보기문항으로 했다.

유연근무제를 택한 응답자는 여성

(39.9%)이 남성(34.6%) 보다 소폭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39.1%)와 40대(38.6%)가 30대(35.8%)나 50대 이상(33.8%) 보다 높았다.

유연근무제를 포함해 연령대별 선호하는 복지 혜택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20~50대까지 전 연령층에서 유연근무제와 인센티브가 선호하는 복지 제도 1,2위로 꼽힌 가운데, 20대는 ▲야근 교통비 지원(25.6%) ▲점심식사 제공(23.8%) ▲통근버스 운행(22.9%) 순이었고, 30대는 ▲직원 휴게공간(24.9%) ▲점심식사 제공(21.5%) ▲야근 교통비 지원(20.6%) ▲자녀 학자금 지원(14.7%) 순으로 선호했다. 40대 응답자는 ▲직원 휴게공간(24.9%) ▲자녀 학자금 지원(23.7%) ▲통근버스 운행(23.1%) 순이었고, 50대는 ▲통근버스 운행(28.6%) ▲자녀 학자금 지원(24.7%) ▲직원 휴게공간(23.4%) ▲차량유류보조금 지원·자기계발비 지원(각



19.5%)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할 기업을 선택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3가지를 선택하게 했더니, '연봉수준'이라는 답변이 56.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직원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응답자가 48.3%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거주지와의 거리(43.7%) ▲기업 분위기(38.9%) ▲성장가능성(31.1%) ▲채용 직무 특성(27.4%) 순이었다. /한홍수 기자

# "직무연관성 없는 '이색경험' 취업 도움 안돼"

기업 10곳 중 1곳 "불이익 준 적 없다"

기업 10곳 중 1곳은 직무와 관련없는 불필요한 스펙을 갖춘 구직자에게 감점이나 불이익을 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사람인이 기업 343개사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스펙과 필요한 스펙(복수응답)'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불필요한 스펙에는 '특기·이색경험'이, 가장 필요한 스펙에는 '전공'이 각각 1위로 꼽혔다.

설문 결과, '특기·이색경험' (51.4%), '한자, 한국어 자격증' (45.9%), '석·박사 학위' (28.6%), '봉사활동 경험' (28.2%), '동아리활동 경험' (26.3%), '학벌' (23.9%), '회계사 등 고급자격증' (22%) 등은 기업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스펙

으로 꼽혔다.

이러한 스펙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복수응답)으로는 '직무와의 연관성 부족' (73.3%)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은 '변별력 없는 스펙' (36.1%), '자격조건을 과하게 초월한 스펙' (16.9%) 등의 순으로 답했다.

특히 기업의 12.2%는 이렇게 불필요한 스펙을 갖춘 지원자에게 감점 등 불이익을 준 경험이 있었다. 이들 중 90.3%는 탈락까지 감행했다.

불이익을 준 이유(복수응답)로는 '지원 직무와의 연관성이 부족해서' (67.7%), '목표가 불명확한 것 같아서' (32.3%), '기존에 채용한 결과 만족도가 낮아서' (29%), '깊이 있는 지식을 못 갖춘 것 같아서' (19.4%), '높은 연봉 조건을 요구할 것 같아서' (12.9%) 등을 들었다. /한홍수 기자

## 가톨릭대

# 교황청 외무장관 대주교 초청 내일 '국제 심포지엄서' 강연

가톨릭대학교(총장 원종철 신부)는 교황청 외무장관 폴 갤러거(Paul Richard Gallagher) 대주교를 초청, 7일 오전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 성의회관 1층 마리아홀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수에레브 몬시뇰 등 천주교 주요 인사와 주한 외국 대사 20여명 등이 참석한다.

폴 갤러거 대주교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세계 평화와 인권 수호를 위한 교황청 외교'를 주제로 강연한다.

/한홍수 기자

# 60세 이상 어르신 '생활 속 과학' 수강생 모집

국립과천과학관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 속 과학지식을 주제로 한 강연과 현장탐방으로 진행되는 '제6기 청춘과학대학' 수강생 8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강의는 오는 8월 21일~12월 18일까지 16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0분~4시30분까지 3시간 씩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예술·문화과학 ▲전통과학 ▲ICT·첨단과학 ▲생활·건강과학 4가지 과정으로 구성됐고, 전문가 특강과 전시해설, 4회

의 현장탐방이다.

강의 주제는 '한국의 과학기술, 과거와 미래' (이길우 KISTEP 사업조정본부장), '한양도성에 얽힌 인문학 시간여행' (최철호 성곡길 역사문화연구소장), '성인병 예방을 위한 차' (송해경 원광디지털대 문화경영학과 교수), '스스로 로봇이냐' (엄윤설 숙명여대 교수) 등이다.

수강신청은 오는 8월 10일까지 수강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이나 팩스, 전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한홍수 기자